

금남로에서



장필수 논설실장

정치인 이낙연 만큼 화려한 이력의 소유자도 드물다. 5선 국회의원에 전남지사를 지냈고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최장수 국무총리까지,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는 다재다능한 정치인이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도 나갔으니 어찌 보면 대통령이란 목표도 목전에 뒀다고 할만하다. 여한이 없을 법도 한데 이런 정치인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24년 몸담아온 민주당을 탈당하고 제3지대 통합 신당에 합류했다가 11일만에 통합을 철회했다. 이낙연은 지난 달 민주당 탈당의 변으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김대중(DJ)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다고 비판했다.

연속 탈당으로 사면초가에 놓여

한 달만인 20일 개혁신당을 나오면서는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답했고 그런 정치를 극복하려면 우리의 꿈이 깃발이었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고 했다. 한 달 사이 두 개의 정당을 깨고 나오면서 DJ 정신을 운운하며 텃밭 호남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민주당 대안 세력을 주장하고 있다. DJ의 공천으로 정계에 입문해 '꽃길'만 걸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닌 듯 하다.

은편칼럼



옥영석 전 중앙자활센터 자문위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간의 욕망이지만 현실은 그다지 녹록치 않다. 2023년 조사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3.6세로 OECD 평균보다 3년 많고 1년전보다 0.1세 증가했다. 그러나 건강수명은 73.1세로 노후 10년 이상을 질병에 시달리며 살고 있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 운동이 기대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얼마나 오래 했느냐보다 어떤 운동을 했느냐에 따라 수명에 차이가 난다는 흥미로운 조사가 있다. 2018년 발표된 이 조사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사는 8477명의 운동 종목에 따른 개인별 수명 차이를 25년간 추적·분석한 것이다. 수영, 조깅, 자전거타기, 테니스, 헬스, 건강체조, 배드민턴, 축구 중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이들은 테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평균수명보다 약 10년을 더 오래 살았고, 배드민턴이 6.2년, 축구가 4.7년 순이었다. 반면 조깅과 건강체조, 헬스는 여럿이서 하는 구기종목에 비해 효과가 미약했

기고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

'초저출생', '국가소멸위기' 등의 표현이 현재 우리나라 인구감소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전남은 2013년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근시일 내에 인구 180만명선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지극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 160만명대, 2043년에는 150만명대로 줄어든다는 것이 통계청의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바로 '전라남도·시군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다. 318은 국가·광역·기초지자체 3자가 공조해 18년간 출생수당을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2024년 이후 출생아에게 0~17세까지 전남도와 시·군에서 각각 매월 10만원씩 총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 요건에 상관없이 주소지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도와 시군 수당을 합치면 18년간 1명당 43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기존 국가 현금성 지원액 2960만원까지 더하면 7280만원이 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지난

이낙연 심중(心中)에 호남은 있는가

이낙연은 진보 진영 정치인들이 겪은 민주화운동 등 험난한 정치 역정을 한번도 경험하지 않았다. 정계에서는 같은 중랑급 정치인인데도 평생 '희생의 정치'를 실천해 온 김부겸과 비교하곤 한다. 둘은 고향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뒤 서울대를 다닌 공통점이 있다. 한 명은 학생운동을 치열하게 해 수감생활을 했고 한 명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다 기사가 됐다. 김부겸은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광장을 가득 메운 1만2000여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감동적인 연설로 단번에 현장 분위기를 독재 타도쪽으로 돌린 천재적인 대중 연설가로 학생운동사에 기록돼 있다. 김근태 등 4, 5공화국 시절 민주화운동 세대의 막내이자 전대협을 중심으로 한 386세대의 큰형으로 매개 역할을 하면서도 운동권 출신 답지 않은 유연하고 합리적인 사고로 신망이 두텁다. 정계에 진출해선 이낙연이 고향에서 16대부터 19대 총선까지 내리 4선을 하는 동안 김부겸은 국회의원에 두 번 낙선한 뒤 16대부터 18대까지 경기 군포에서 3선을 했다. 하지만 19대에선 등 4선을 버리고 협지인 자신의 고향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과 2014년 민선6기 대구시장 선거에 잇따라 출마해 낙선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대구 정치 1번지인 수성갑에 민주당 깃발을 꽂았다. 김부겸이 협지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는 동안 이낙연은 전남지사를 거쳐 21대 총선에서 서울 중로에 당선돼 김부겸과 여의도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5선의 이낙연과 4선의 김부겸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인연도 있다. 그러나 이후 행보가 더욱 선명하게 갈린다. 김부겸은 민주당이 정권을 내주자 미련없이 정계에서 은퇴했지만 이낙연은 탈당에 이어 '정권 심판'이라는 고향 사람들의 염원을 뒤로 한채 야당 분열의 길을 걷고 있다. 호남 유권자들은 DJ와 노무현의 진보진영 10년 정권 창출을 주도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민주당의 협지인

부산에서 수차례 도전 끝에 뜻을 이룬 '바보 노무현'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들어 결국 정권 창출을 해낸 기억을 잊지 못한다. 이런 호남 유권자들이 이낙연의 정치 행보에 배신감을 갖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을 대장동 사건을 파뜨린 이낙연에게서 찾는 지역 정서가 여전한 것도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다.

호남 민심 경청해 판단해야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우리당'으로 부를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이재명의 당이어서도 아니고 오랫동안 진보정당의 정통성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호남을 기반으로 중진 정치인이 된 이낙연이 민주당을 버리고 신당을 만들어 총선에 뛰어들 것엔 분노하는 이유다. 지역민들은 2000~3000표 차이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에 이낙연이 당이 악영향을 주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정치인 이낙연은 평생 '희생정신'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평가가 많다. 호남을 위한 정치를 하기 보다 개인의 영달을 위한 정치 역정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보이고 있는 같지자 행보도 그런 맥락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정치 9단' 김종인은 이낙연을 향해 "정치인은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이낙연은 결국 자신이 창당한 '새로운미래'로 총선을 치르게 됐다. 제3지대 빅텐트를 걷어 차고 나온만큼 호남을 기반으로 의미있는 득표를 하지 않으면 정치인으로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그런데 새로운미래는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평가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과 접촉하겠다고 밝히는 등 이른바 '이삭줍기'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현실이겠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인 이낙연에게 미래가 있으려면 지금이라도 호남 민심에 귀 기울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건강수명을 효과적으로 늘려주는 운동은

다. 또 다른 연구결과도 있다. 호주 시드니대학에서 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와 같은 라켓 스포츠와 조깅 사망률의 연관성을 15년간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 사는 30세 이상 성인 8만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라켓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은 사망 위험률이 50% 낮아졌고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56%가 낮아졌다. 이에 비해 수영과 에어로빅은 조깅 사망 위험률을 30%, 자전거타기는 조깅 사망률을 15%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유럽에서 즐기는 테니스는 주로 단식으로 한다는 점에서 복싱위주로 게임을 즐기는 우리의 운동량이나 현실과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테니스를 얼마나 즐기고 있을까? 국내 테니스 인구는 월 1회 이상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기준으로 160만명 수준이나 중국 인원을 감안하면 6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코로나를 겪으며 젊은 세대가 대거 늘어나 테니스웨어나 신발 등 용품시장이 모처럼 활황을 맞고 있지만 여전히 저변 확대를 막고 있는 요소들이 많다. 우선 테니스장이 부족하다. 2019년을 기준으로 국내의 코트는 공공시설과 사립코트를 합해 5245면이 운영되고 있으나 도심에서는 점점 밀려나고 있고 아파트에 있던 테니스장은 농구장이나 주차장으로 바뀌고 있다. 실내 테니스장이 늘고 있지만 레슨용 반쪽짜리

인데다 시합이나 게임을 할 수 있는 실내코트는 광주에서도 전천후테니스장 4면이 불과하다. 이는 학교와 공공기관의 코트를 합리적으로 개방하여 동호인들이 널리 이용하게 함으로써 보완해 가되, 광주오픈을 개최하고 있는 진원테니스장은 4면 정도는 실내코트로 확보해주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과도한 수강료를 낮춰야 한다. 현재 광주의 실내 테니스장에서 1대1 레슨을 받으려면 주 2회만 하더라도 24~28만원 정도는 지불해 부담스럽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나 직장에서 일부를 보전해 코치에게는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되, 수강자에게는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건강을 위해 수강료 일부를 지원한다면 자연히 생산성으로 직결될 수 있을 것이다. 동호인들도 폐쇄적인 테니스클럽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A, B조로 실력대로 구분해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월례대회 등을 통해 초보자들과 함께 운동하며 격려해주고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받아들여야 클럽도, 코트도 유지될 수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더할 나위없는 축복이지만 병석에 누워 10년을 살아야 한다면 가족에게나 사회에 부담만 주는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준비는 개인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소통과 공감도 필요하다.

'318프로젝트'로 전남 살리겠다

14일 '전라남도·시군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사회보장제도 등 사전 행정 절차 진행과 예산확보를 통해 이르면 올 하반기에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318 프로젝트는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18년간 국가적으로 380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저출생 대응에 투입했으나 실제 출산 가정이 겪는 비용부담을 효과적으로 절감해주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족예산 현금성 지원 비중이 0.32%인데 OECD의 평균 1.12%의 30% 수준밖에 되지 않아 현금성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국가에서 주는 수당은 1세 혹은 7세까지 영유아기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초등학교 이상 학령기 지원이 부족했다. 318 프로젝트가 시행된다면 실제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확실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1인당 지원금 4320만원이 타 시도에서 최근 발표된 정책들에 비해 적어 보일 수 있으나 타 시도 정책은 기존 국가 지원금과 교육비, 선별성 지원금까지 대부분 포함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152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금액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정부와 광역, 기초지자체가 힘을 모아 저출생에 대응한다는 것을 강조한 의미를 담았다. 인구 소멸 위기는 어느 한 기관이 아니

라 국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생수당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현금성 지원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지만 소멸해가는 지방의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318 프로젝트에 담겨 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국가 차원의 대책을 시행해야 할 때다. 정부에서 전남과 동일하게 매월 20만원씩 18년간 지급하면 연간 최대 10조원이 소요되는데 국가 소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다. 또한 현재 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졸업 12세까지 지급 기간을 늘려야 한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감한 외국인 근로자 대책과 이민 정책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빨리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신설하여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전남에서 올해 전국 최초로 '인구청년이민국'을 비롯한 이민 전담부서를 신설한 만큼 이민청이 전남에 자리잡는다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전남형 만원주택 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정책을 추진하여 출생, 주거, 외국인을 3대 핵심 정책으로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한다. 인구는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다.

社說

현실화 된 의료대란...환자 피해는 없어야

우려했던 의료공백이 현실화됐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광주·전남지역 수련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70% 가량이 그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과에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병원측에 전달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해 서울 '빅5 병원' 등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건복지부 집계 결과 그제 밤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체 전공의 55%(6415명)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라 수련병원에 수술이나 진료를 예약한 환자와 가족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병원측이 입원과 수술을 연기하고 조기 퇴원을 권유하면서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갈 상황에 놓여있다. 대학병원 1층 로비에서 만난 한 척추척삭증 환자는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통증

이 심하지만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제때 수술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병원측은 전공의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회는 한치의 양보나 타협 없이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의협과 사전협의 없이 증원계획을 발표해버린 복지부는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제재'를 하겠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집단 사직에 나선 전국 830여 명의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앞으로 '강제이행명령'과 의사면허 정지, 고발 등의 추가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간 싸움에 환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환자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법대로'와 '집단행동'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정부와 의사회는 일촉즉발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상호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11일만에 '빅텐트' 해체...각자도생의 길로

개혁신당이 통합 11일만에 공동대표인 이낙연측의 이탈로 각자도생의 길을 걷게 됐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 주제들의 합의가 무너졌으며 개혁신당과의 합당 철회를 선언했다. 철회 배경으로는 공동대표인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전이 최고위원회 표결로 강행 처리된 것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당 통합 과정도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이 창당한 '새로운미래'로 총선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크게 4개 세력이 한데 뭉쳐 개혁신당이란 이름으로 제3지대 빅텐트를 친지 11일만에 주력 세력이 이탈하면서 제3지대는 각자도생의 길을 걷게 됐다. 생각보다 빠르게 각자도생의 길에 들어선 것은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이준석과 이낙연 공동대표가 상생을 위

한 양보보다는 선거 주도권을 놓고 다툼을 벌인 것이 원인이 됐다. 주도 세력의 결별로 오랜만에 형성된 제3지대 정치 구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어떤 면에서는 빅텐트 효과가 줄었지만 결별로 인해 각자 뚜렷한 이념과 정체성을 내세워 지지층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의 경우 이낙연과의 합당으로 이탈했던 20~30대 남성 등 기존 지지층을 겨냥해 정체를 내 놓고 있다. 이낙연의 새로운미래는 현역 평가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영입을 추진해 세를 불린다는 계획이다. 제3지대 빅텐트가 결과적으로 화합적 결합을 이루지 못하고 좌초한 점은 아쉽지만 11일만에 주력 세력이 이탈하면서 제3지대는 각자도생의 길을 걷게 됐다. 생각보다 빠르게 각자도생의 길에 들어선 것은 이념과 정체성이 다른 점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이준석과 이낙연 공동대표가 상생을 위

無等鼓

정월 대보름은 우리 조상들이 설날보다 더 성대하게 맞았던 명절이다.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15일 동안 설명절이라고 해 연일 축제였으며, 이 시기에는 빗 폭우도 하지 않았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였다. 선조들은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 대보름에 새해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고 한해의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로 달집 태우고 쯔쯔놀이와 지신밟기 등 민속놀이를 했다. 달집태우기와 쯔쯔놀이 등이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했다면, 부럼깨기와 오곡밥(보통 팔·수수·차조·잡쌀·검은콩) 먹기는 개인의 건강과 관련이 깊었다. 그중에 부럼깨기 정월 대보름 이른 아침에 땅콩이나 호두 등 견과류를 어금니로 깨무는 부럼깨기는 지금까지도 잘 지켜지고 있는 세시풍속이다. 부럼 깨기에 대한 정확한 유래는 알기 어렵지만 조선 후기에 나온 여러 세시기류나 죽자사루 기록에 그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전승되어온 민속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부스럼(또는 부럼) 깨물기'라고도 하고 '부럼 먹는다'고도 한

다. 그러한 견과류를 일반적으로 '부럼' 또는 '부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한데 세시풍속으로 부럼깨기가 이어져 온 데는 식품영양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옛날에는 음식을 골고루 잘 먹지 못해 부스럼이 생기고 건강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름지고 영양이 많은 견과류를 먹으며 건강하길 기원했다. 부럼 깨기에는 겨울철에 부족하기 쉬운 필수지방산과 비타민 등을 보충하려는 의지도 담겨있다. 사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영양소가 풍부하므로 건강에 좋은 양으로도 높은 열량을 섭취할 수 있게 해 달을 정해 먹는 풍습을 만들어 건강을 지키려 했던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며칠 뒤면 정월 대보름이다. '대보름에 다른 성을 가진 세 집 이상의 밥을 먹으면 그해의 운이 좋아진다'라는 말이 있다. 정에 목마른 이때 부럼이 아니라도 가족 친지, 이웃과 먹을거리를 함께하면 어떤가. 꼭 국내산으로 말이야. /김대성 제2사회부장 bigkim@

Table with 2 columns: 광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